

단 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

신 등 천

영국 런던대학의 산업보건 대가인 R.S.F. Schilling 이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1989년 10월호에 기고한 '산업장에서의 근로자의 건강보호 (health protection) 와 증진 (promotion)' 이란 제하의 글은 산업보건이 지향하는 바 목표와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보건관리의 필수적인 기능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는 바이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근로자의 절반이 하만이 보건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산업보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의료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많은 상태이다.

영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직업성 상해와 질병으로 연간 약 1,400명이 사망하고 145,000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사망 및 이환자수도 과소평가 된 것이란 증거는 많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산업보건연구소의 도움으로 직업병등록과 산업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유럽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예를들면, 핀란드의 산업규모는 영국에 비해 약 1/3분지 일 정도 이지만 직업병발생은 영국에 비해 단지 1,200명 적은 상태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핀란드의 질병확인 및 보고가 영국보다 약 10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질병이란 한두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되기보다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란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직업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나는 질병 둘째, 직업이 기여요인 (contributory cause) 으로 작용하는 질병 셋째, 직업에 의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는 경우와 넷째, 직업때문에 어떤 질병의 위험요인에 자주 접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첫번째와 세번째의 경우는 근로자의 직업을 염두에 두면 쉽게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 네번째 경우의 예로는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bartender) 에 알코홀로 인한 간경변증이 많다는 것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직업상 불가피하게 어느 요인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어느 정도의 위험요인 감소 외에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두번째의 경우 즉, 직업이 하나의 질병발생 기여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로는 관상동맥심장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고혈압, 정신질환, 요통 등을 들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식이, 운동부족 등이 있다.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서하거나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이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보고는 여럿 있다. 또한 이황화탄소 (CS₂), 유기용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도 질병의 위험요인이 된다.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의 원인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결국 스트레스가 이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게끔 하기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되면 흡연, 음주, 과식, 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이 병행하게 되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된다.

필자는 한편으로 직업이 생활리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주로 고연령계층과 신체장애자의 사회활동 유지와 직업재활의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한정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노령인구의 증가를 감안할 때 노인들의 직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넓은 분야의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에는 정부와 기업관리자, 조합, 보건전문가 그리고 근로자 자신들의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